



전학하기 전까지 남녀 공학의 중학교에서 부동의 반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던 나는 새삼스럽게 여자 아이라는 조건 때문에 부반장의 위치로 내려 앉고 말았다.

상고머리를 나풀거리던 그는 공부 잘하는데다가 기성회장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전학 온 뒤 얼마 안되어 곧 반장이 되고 말았지만 나는 이 사실이 섭섭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는 우리와는 좀 다른 눈부신 독특함이 있었고 모든 아이들의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만 했다.

웃을 땀 눈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 할지 가지런한 치열, 약간 곱슬의 머리 같은 것이…… 내 왕자님의 환상은 차라리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뻔하였다.

어쨌든 그날 우리는 자리를 함께 했다. 그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우리는 그간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얘기는 주로 그가 하고 나는 듣는 편이었다. 그리고 내 왕자님의 환상이 깨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그가 겪은 씩씩한 이야기들만이

대학 시절에, 그리고 내가 결혼할 무렵 나는 그 옛날의 미소년도 하지금쭈 결혼을 하였을까, 그렇다면 상대는 누구일까, 막연히 양갓집의 어여쁜 규수일테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임 정호씨와 내가 좋아하는 사이라고 오래도록 아이들의 입설에 오르내리던 기억, 내가 지나갈 때 사내 아이들이 수근대며 키득거리거나 열레 폴레리 놀러대면 얼굴이 화달아 오르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가 씩 웃었다.

가지런한 치열과 단정한 입매부새가 한층 옛날의 그 소년적 모습과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혼 했습니다. 좀 늦었지요.”

나는 누구와 결혼했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말했다. 아주 즐거운 듯이.

“지순자라고…… 기억 나세요?”

“… 시장서 가게 보던.”

지 순자, 이상하게도 기억이 생생하였다. 눈과 키가 아주 조그맣고 암광지던 아이였다. 공부는 시원치 못했지만 이따금 아주 엉뚱한 발언으로 우리들을 웃기곤 하였었다. 학교를 자주 빠지곤 하였는데 이유는 엄마가 아프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그때 이미 학교는 건성으로 어린 그녀는 살림을 도맡다시피 하였던 것이다.

그 까맣고 키작은 순자가 그의 아내라니, 나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내 상상속에서 한번도 순자가 그의 아내로 연결되어진 적은 없었던 것이다.

“영등포 시장서 우연히 만났지요. 둘다 한창 어려웠을 때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어려웠고 어떻게 살아 왔는지는 더이상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사람 통해서 동창들 애긴 가끔

나를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어쩌면…… 십몇년이라는 세월이 유복한 한 소년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달려 올 수가 있었던 말인가. 나는 시종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E여대 맹기셨다는 애기랑… 좋은 분이랑 결혼하셨다는 애긴 가끔 들었었지요.”

그는 옛날의 그 소년으로 되돌아가서 담담하게 웃으며 이야기 하였다.

“결혼은…… 하셨던가요?”

내가 물었다.



오래도록, 열네살적 여자 아이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미소년을 떠올린다는 것이 내겐 비밀스럽고 조그마한 즐거움이었던 것이다.

“그럼 님이…… 임 정호씨세요?”

나는 좋지 않은 혈색에 피죄죄한 모습으로 불쑥 나타난 눈앞의 남자가 십몇년전 그렇게도 어린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던 그 주인공이라고는 차마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비로소 나는 그의 용모 한 구석에 옛날의 자취가 남아 있음을 인정해야

씩 듣고 있지요.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도 집사람이 한번 찾아 보라고 해서 체면불구 찾아와 본 겁니다.”

지 순자가 나의 근황을 모두 알고 있고 더구나 우리 집으로까지 자기의 남편을 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아까 문을 따고 절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인줄 알았습니까?”

“외환원인줄 알고 그냥 들어올려고 했어요.”

그가 큰소리로 웃었다.

의 기성회장이 영남공업사 집 이층이 불타던 모습을 나는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가슴을 조이며 보았었다. 그날 오후에 J읍의 하늘 한쪽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반장은..... 반장은 어떻게 됐을까?

한길가로 나와서 사람들 틈에서 나는 말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임 정호네 하얀 이층집이 무서운 기세로 불타서 다음날 까맣고 흉한 몰골의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건과,

삼철이 아저씨라고, 학교에서 수위하던 털보 아저씨가 그만 두고 소방대원이 되었는데 불길속에서 임정호를 업고 나온 것이 바로 그 아저씨였다는 정도의 뒷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반장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 병원을 찾아가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수근대며 오래 오래 놀러달 것이 마음에 걸려서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다음해 나는 곧 큰 도회지로 나왔던 것이다.

“사람이 확실히 운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화재사건 이후로 우리 집은 계속 내리막이었지요. 그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공장도 날라가 버렸습니다..... 폭삭했지요.”

그는 다시 씩 웃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그래도 그만 하기가 다행이었지요. 몸은 성하셨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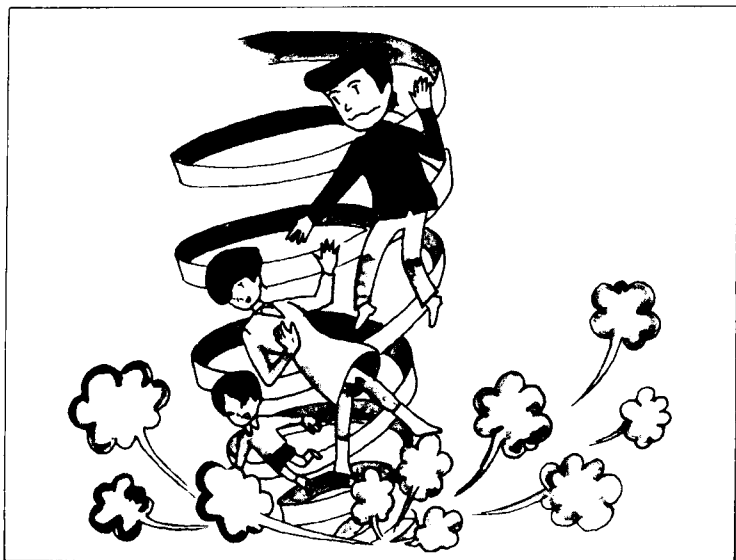
“그렇지도 않아요.”

그가 팔뚝을 쪽 걸어 보이자 거기엔 징그러운 땀이 칭칭 감아 올라간 듯한 흉한 자국이 어깨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흠칫하며 물러났다.

“그때 내 방에서 숙제를 하다 갑박 졸았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장호지가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안게셨고..... 놀라서 뛰쳐 나가려는데 서까래 한쪽이 내려 앉으면서..... 그대로 그 불길에 휩싸였죠.”

그는 여전히 덤덤하게 얘기했지만 나는 소름이 끼쳤다.

“그때 나를 향해 넘실대던 그 싹뻗은 불길이 얼핏 악마의 혀바닥 같다고 생각했죠. 아주 길고 징그러운 혀바닥이었어요. 그것이 한번 활고 지나간 자국마다 처참했죠. 여길 보세요. 흉하게 일그러져서 10년이



“잘 보셨습니다. 역시 숨길 수 없나봐요. 외관은 아니지만, 지금 그 비슷한걸 하고 있죠.”

그는 확실히 옛날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별로 말이 없던 그 하얀 얼굴과 커다란 눈을 가진 그 미소년은 아주 선이 굵고 튼튼한 한사람의 생활인, 가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집 불난 사건은 아시고 계시죠?”

담배를 피워 물며, 남의 일 처럼 그가 덤덤하게 말했다.

물론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학교

두터운 손으로 잠자리에서 늘 내 등을 시원하게 쓸어주던 할머니가 돌아 가셔서 그 시신을 염하던 모습은 아마도 내 소녀 시절에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두가지 사건이었을 것 같다.

“부귀 영화 쓸 데 없네. 한바탕 불길에 잿더미 됐으니.....”

“임 사장네 봐라. 살았달게 뭐 있나. 하루 아침에 알거지 신세다.”

그당시 어른들은 곧잘 그런 말들을 했었다.

화재이후로 나는 반장을 두번 다시 볼 수 없었다.

넘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여길 보이면 사람들은 질겁을 하죠. 제 아내만 빼놓고는 말입니다.”

정말 깊고 징그러운 흉터였다.

나는 머릿속에서만 뱅뱅 걸돌던 「불조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절실하게 뒷골을 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화재보험 의무사원이 된 것은 순전히 그대 그 사건 때문이죠. 그 일로 망하고 그 일로 밥 벌어먹고 사니... 묘해요.”

그가 씩 웃었다.

그는 화재보험의 의무사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비로소 느닷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 이 방문객의 용건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한가하게 추억의 정담을 나누기 위하여 기억도 회미한 옛 동창생의 집을 물어 물어 찾아오지 않은 것만은 분명했다.

다른 직장도 몇 번 잡아 봤지만 어렸을 적 이후 가위눌림 때마다 그 혀를 내름거리고 다가오는 불길의 환상이 너무도 강력하여서 도저히 안정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잊어버리려고 여기 저기 일자리를 옮겨 다니

며 별짓을 다했지만 한밤중 바람벽을 울리며 달러가는 불자동차의 경적만 들어도 가슴이 벌떡 벌떡 뛰어서 안절부절 견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일…… 안 겪어보면 모르지요. 복수를 하려해도 상대가 없어요. 제 부친도 일년내 한숨만 푹푹 쉬다 울화가 병이 되어 숨이 멎으셨죠. 병원에선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아버님 맏힌 한은 아마 우리 어머니나 저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밤마다 벽을 치며 꺼이꺼이 우시다가 그대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는 나직하게 말하며 끝까지 남의 얘길 하는 투로 담담하였다.

“몸이 약해 소방대원은 못되고, 결국 이궁리 저궁리하다 이쪽 길로 들어섰는데... 제가, 이 분야엔 실력 잡니다.”

그는 가지고 온 노란 봉투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밝게 웃었다.

“화재보험이라면 시큰둥하다가도 제가 이 왼쪽 팔뚝의 흉터를 보이며 경험담을 얘기하면 대개 달라지죠. 이 흉터 덕을 톡톡히 보는 셈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조용히

말했다.

“주인 들어오시면 상의해서 하나 들어 두세요. 이거 오랫동안에 만난 옛 동창생에게 결국 보험애기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약은 상술이라고만 생각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얻치불구, 아는 얼굴부터 찾아다니는 건 물론 실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선 나 아는 사람부터 화재라는 악마로부터 보호해 보자는 의도가 큼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만나도 부끄럽거나 하지 않고 참 떳떳하고 보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참으로 절실한 말로 들렸다. 그리고 진실성이 가득 담긴 그의 그 절실한 말이 바로 그에게 많은 「실적」을 올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뜻밖에 환상속의 왕자님 아닌 화재보험 의무사원이 되어 나타난 옛날의 「반장」을 그러나 정답게 배웅하였다.

속으로 나도 꼭 그의 고객중의 한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하면서. ■

## 겨울철 火災줄어

지난81년 이후 연평균 11%씩의 증가추세를 보여오던 월동기(11월~2월)의 화재발생률이 3년만에 처음으로 19%나 감소했다.

내무부가 밝힌 월동기의 화재발생건수를 보면 81년에 2천1백35건이던 것이 해마다 평균11%씩 늘어 83년엔 4천91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9%가 줄어든 3천3백13건이 발생했다.

이에따른 인명피해도 81년엔 3백76명(사망1백20명)이던 것이 연평균 12.5%씩 늘어 83년엔 7백19명(사망 2백44명)이었으나 금년 겨울철(11월~2월)엔 3백58명(사

망 1백1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0.2%나 줄어들었다.

재산피해 또한 81년의 경우 85억4천8백73만6천원이던 것이 연평균 33.3%씩 늘어나다 올겨울엔 45억5천8백93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월동기간중의 화재발생원인을 보면 전기에 의한 것이 9백97건으로 가장 많고 유류3백57건, 담배불 3백55건 난로취급부주의 3백26건, 불장난 3백8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이처럼 올겨울의 화재가 줄어든 것은 국민들의 화재예방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